

왕진가방

글 | 신좌섭 (서울대학교병원 병원사연구실 겸직교수)



①번 사진은 서울대병원 의학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왕진가방이고, ②번 사진과 ③번 사진은 함경북도 갑산진 혜산(惠山)의 혜산의원 의사가 왕진을 가던 모습이다. ②번 사진에는 '소화 5년 (1930년)경의 왕진은 말(馬)로, 국경, 혜산진의원'이라고 써있는데, 말에 오른 중절모 의사에게 왕진가방을 건네주는 간호부의 표정이 무척 진지하고 복장도 이채롭다. ③번 사진에는 '대정 원년 (1911년)경의 왕진은 썰매(橇: 橇)로'라고 써있는데, 썰매에 앉아 있는 사람이 의사이고 썰매를 끄는 당나귀 고삐를 쥐고 있는 사람은 시종으로 보인다.

20세기 전반까지만 해도 왕진이 성행하였다. 1919년 조선총독부위원과 각 도 자혜위원의 의료비를 보면 내복약은 1일 18전이었고 하루 입원료는 100원, 조산료는 50전에서 1원까지였으며, 왕진료는 5원에서 15원 사이였다. 거리에 따라 차별을 둔 것으로 보인다.

왕진가방과 청진기는 의사의 상징이었다. 좋은 예는 아니지만, 1939년 2월 4일 신문에는 '왕진가방에 청진기를 가지고 의사행세를 하여 가정 부녀자를 농락한 자'를 체포한 기사가 실려 있어 당시 왕진가방이 갖고 있던 문화적 상징성을 되새기게 한다.

1940년대에는 교통수단으로 말 대신에 자동차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때문에 자가용승용차로 왕진할 경우 차 값을 별도로 청구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는데, 결국 당국은 자동차의 보유는 직업시설의 일부이고 직업비용 일체의 견지에서 이 차량의 유지비와 같은 것은 당연히 진찰료에 포함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